# 난산(難産)의 처치

수의사 구 자 홍

〈서울우유협동조합 지정수의사회 학술부장/
이천 서울가축병원장〉

어제는 몇군데 목장일을 끝내고 일찍 귀가하여 일본 북해도 대학교의 교수께서 보내주신 젖소의 수정란 이식이라는 책을 저녁 늦도록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요란스런 전화벨소리에 잠을 설치고 깨었다. 수화기를 드니 다급한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이천의 C목장인데 빨리 나와 달라는 것이다. 물론 한 밤중의 전화니까 응급케이스인 것만은 틀림없겠지만 무슨 일인지 내용은 밝히지 않고 빨리 왕진와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내쪽에서 내용을 물으니 난산인데 분만은 되지 않고 어미소는 지쳐 쓰러졌는데 숨은 가삐 쉬고 혀는 빼물고 금방 죽을 것만 같으니 빨리 와 달라는 것이다.

서둘러 준비를 끝내고 목장에 도착하니 한밤중인데도 웬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축주와 문진을 하면서 검사를 해 보니 경관의 불완전개구 상태에서 송아지의 앞발만 계속 당긴 결과로 머리부분은 저만치 자궁 깊숙히 꺽여 들어가 태아의 목덜미 부분만 간신히 손에 잡히는 상태다. 이쯤되면 속된말로 「이젠 죽었구나」하는 말이 저절로 나옴직도 하다. 하지만 어쩌랴. 이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임무이니 최선을 다할 수 밖에는.

팔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새벽 2시 정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에 열중하였다. 이곳 이천에서 「구」원장으로 통하는 나는 소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매일 수백리 황토길을 누비고 다녀야 하는 수의사직업이니 잠시 후면 느낄 수 있는 작은 보람을 위해 정신을 집중해야지!

그러나 축주의 자랑(?)을 들으면서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목장경험 5년만에 이런 난산은 처음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끝내 안되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 사람이 당기다가 힘이 모자라는 줄로 알고 다섯사람, 일곱사람, 사람 수는 점점 늘고 그래도 안되어 나중에는 경운기의 힘까지 빌려 당겨보았지만 어미소가 끌려오다가 쓰러진 후엔 혀만 빼물고 가쁜 숨을 몰아쉬니 금방 죽을 것만 같더란다. 그때서야 겁이 나서 가축병원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난산이라고 하는 연락은 대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많다. 지금 이 목장에서 발생된 난산의

경우는 아마도 대개의 경우 우리들 주변 목장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난산의 예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난산의 원인 예방 및 처리방법을 설명드리며 난산도 어느 정도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분만에 따르는 특별한 습관을 길러 이 습관을 지킴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난산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난산의 원인

환경적인 것과 분만시 요구되는 기술적인 면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어미쪽과 송아지 쪽에서 원인이 되어 각기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소 : 불량한 사양관리, 운동 부족, 과비 현상, 영양부족 등

○기술적 요소 : 조산시 경험부족이나 판단 착오로 오히려 난산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인위적인 조기 파수, 판단 착오 등을 들 수 있다.

○모체측 원인 : 골반강의 협소, 경관의 불완전 개구, 질강의 협소, 자궁염전 등

○태아측 원인 : 과대 태아, 이상 태위, 기형, 미이라 변성 등.

이 목장의 환경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좁은 운동장과 사료작물포 부족에서 오는 농후사료의 과급으로 인한 모체의 과비 현상을 들 수 있겠으나 환경적인 것은 매우 광범위 하여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분만 준비기 말기에 이르러 송아지는 자궁경관 밖으로 밀려나와 산도에 이르고 융모막과 요막(尿膜)이 파열되는데 이것을 제 1 차 파수라고 한다.

제 1 파수(뇨수)가 된 후 제 2 파수(양수)가 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정상적인 예에서 대개 30~6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 1 파수가 된 후 분만 진통이 더욱 강해지면서 양막에 쌓인 태아의 발과 머리 앞부분(주둥이와 코)이 조금씩 질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자궁경관 및 질강이 열리는데 이 때에는 계속 관찰이 필요하고 진통이 강하여 분출되는 힘이 세어지면 대개는 자연적으로 양막이 파열되면서 양수가 흐르게 된다. 이때 깨끗한 용기(소독수로 닦은 양동이)에 양수를 담아 놓고 손을 소독한 후 질내로 손을 넣어 태아의 태위(위치)를 확인 후 정상 태위일 경우 양 발목에 로프를 매고 조산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내로 넣은 손을 빼지 말고 태아의 발과 머리가 함께 나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진통시와 맞춰서 당겨야 한다.

대개의 경우 제 2 파수가 되는 즉시 태아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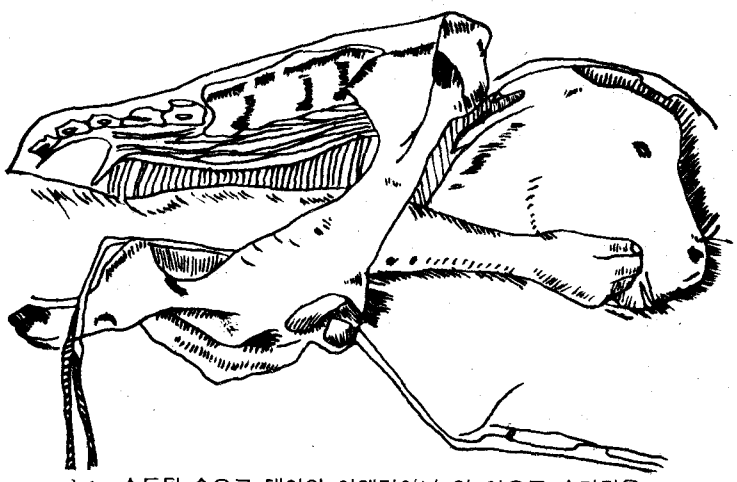

그림 1 소독된 손으로 태아의 아래턱이나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볼을 잡아당겨 정상위치로 돌리는 방법

발목에 로프를 매고 당기기만 하는데 손을 넣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경관이 좁거나, 태아가 크거나, 태위의 이상태위일 때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태아의 발만 당겨지고 머리부분은 상하좌우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틀어지는 수가 많은데 이 때에는 아무리 무리한 힘을 주어 당겨도 송아지는 분만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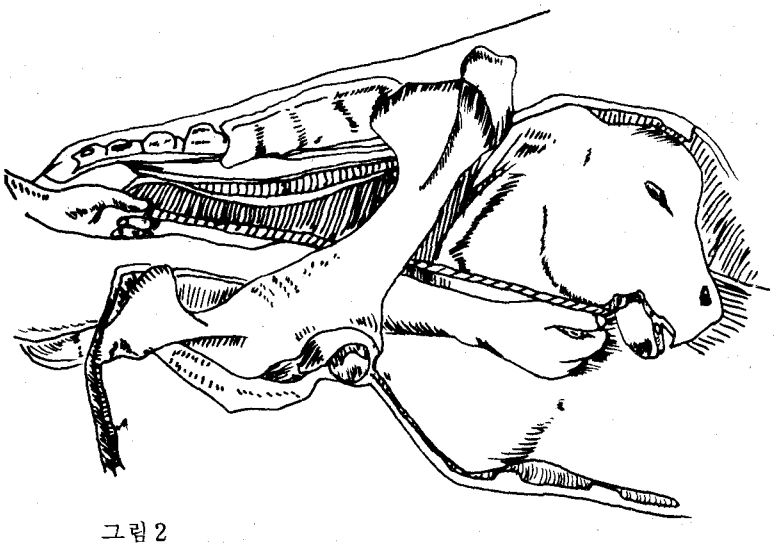

그림 2
손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는 가느다란 로프를 사용하여 태아의 아래턱에 매듭을 지어 당기는 방법.

물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태아의 머리부분을 정상위치로 옮길 때에는 태아의 발과 몸체를 자궁쪽으로 힘껏 밀어넣은 후 그림과 같은 작업을 해야만 수월해진다. 그리고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난산의 예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빈번히 발생되는 케이스를 설명드린 것으로서 다른 경우에도 일단 정상위치를 만든 다음에 조산을 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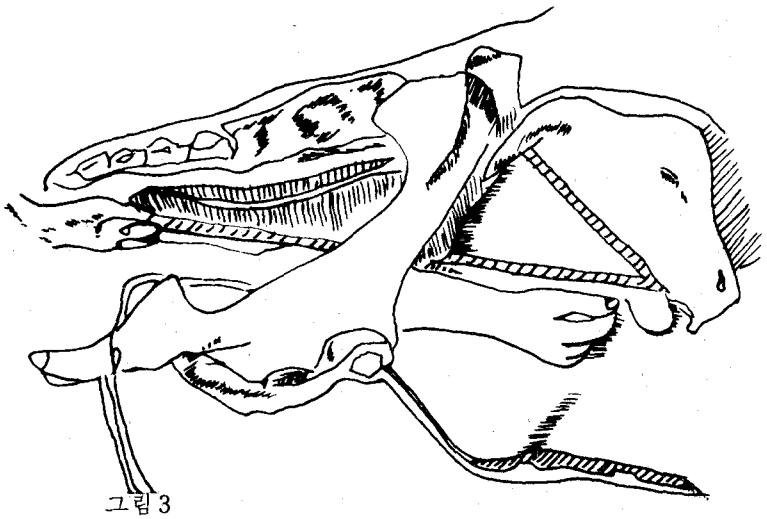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2 의 방법으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송아지의 입안으로 로프를 넣고 정수리를 따라 매듭을 짓고 당기어 머리부분이 경관을 통과하면 즉시 매듭을 풀어주어 송아지의 질식을 예방하면서 분만시키는 방법.

난산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태아를 추출한 때도 많은데 분만기 등을 사용하여 무리한 힘을 계속 주었을 때에는 이미 자궁이 파열되어 수술의 가치를 찾을 길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 이런 실수는 파수가 된 후 송아지의 발목을 매고 나서 로프를 당길 때 손을 넣고 태아의 위치확인 및 머리와 발이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만 계속 준 결과이므로 분만시에는 질과 손을 소독 한다음 질 안으로 손을 넣고 분만작업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겠다.

## 분만시 준비물

○분 만 로 프 : 신축성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좋으며 소독수에 담가 두었다가 사용할 것.

○옥 도 정 기 : 송아지의 탯줄 소독시 사용.

○가 위 : 소독된 가위로 탯줄이 길 때에는 잘라 줄 것.

○소독된 거즈 : 분만된 송아지의 구강과 비강의 양수를 제거할 때 사용 (거즈가 없을 경우 깨끗한 수건을 소독수에 담갔다가 물기가 없을 정도로 꼭 짜서 사용할 것. 송아지의 호흡 염증 및 장염의 예방목적)

○식 용 유 : 자궁경관, 질벽, 태아의 체표면에 고루 발라주어 산도를 매끄럽게 만들어 분만이 용이하게 해주며 산도의 상처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앞에 기술한 대로 양수를 사용해도 좋다.

○자궁 보러스 : 분만후 자궁 깊숙히 2～3개를 넣어줌(자궁내 염증의 예방 및 후산처리에 도움을 줌)

## 분만시 꼭 지켜야 할 습관

1) 조산시에는 송아지의 태위 및 발과 머리부분이 함께 나오는 것을 계속 확인할 것. (손과 기구를 사용할 것)

2) 분만 후 송아지의 뒷다리를 매어 거꾸로 2～3분간 매달아 놓아 구강과 비강의 양수를 제거시킬 것. (소독꺼즈 사용이 바람직)

3) 분만 후 재차 손을 소독한 다음 자궁 보러스 2～3개를 자궁 깊숙히 넣어 주고 쌍태유무를 확인할 것이며 손을 서서히 빼면서 산도의 상처 유무를 확인할 것.

(쌍태의 경우 확인이 빠르며 산도에 심한 상처을 받아 출혈이 많을 때는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치료 및 자궁탈의 예방 조치를 받을 것)

謹賀新年

乙丑年 元旦

社團法人 韓國酪農肉牛協會

任職員一同